

## 조선시대의 불화(고승 진영)

박혜원 | 203호 불교회화실 | 18:00~18:30

‘고승高僧 진영眞影’은 불교에서 스승이 입적한 뒤 존경과 추모의 마음에서 스승의 모습을 초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한편,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물려받은 관계임을 마치 족보처럼 체계를 세워 법통法統을 확인하고 승려 문파 내에서 유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고승 진영은 “참모습[眞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터럭 하나라도 다르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일반 초상화의 엄격함과는 달리 주인공이 입적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제작하거나 원본을 옮겨 그리는 등의 과정에서 실제 용모와는 멀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참모습’이 단지 ‘실제 용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진영의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맥法脈의 전수를 중요하게 여긴 조선시대 불교에서 스승의 진영, 즉 스승의 참모습이란 스승의 삶과 가르침, 스승이 남긴 정신적 유산 전부를 함축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기허대사 진영>, 조선 19세기

우리 나라의 고승 진영 중 대표적인 것으로 삼화상三和尚 진영이 있다. 삼화상 진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기여한 지공指空(?~1363)·나옹懶翁(1320~1376)·무학無學(1327~1405)의 삼화상이고, 또 다른 삼화상인 청허淸虛(1520~1604)·사명四溟(1544~1610)·기허騎虛(?~1592)은 임진왜란에서 활약한 의승장이다.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기허당 영규靈圭(?~1592)를 그린 <기허대사 진영>은 불교회화실에 나란히 두 점이 전시되었다. 두 점의 <기허대사 진영>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한 승려의 진영이 서로 다른 용모로 표현된 예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제562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0월 18일)

## 특별전 <王이 사랑한 보물> (4)

### - 쿤스트캄머(호기심의 방)와 그린볼트 (II)

박경도 |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18:00~18:30

‘그린볼트(Green Vault)’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Augustus the Strong, 1670~1733, 1694년부터 작센의 선제후, 1697년부터 폴란드의 왕)의 컬렉션을 전시한 공간으로, 드레스덴 레지덴츠 궁전의 서관 1층에 위치합니다. 16세기 후반부터 궁전 서관은 작센의 선제후들이 수집품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의 역할을 하였으며,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재위 당시인 18세기 전반부터는 유럽에서 가장 큰 왕실 예술 컬렉션 중 하나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그린볼트를 단순한 보물창고가 아닌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구상하여 선제후 가문 대대로 내려온 컬렉션을 재배치했습니다. 기존에 유행했던 ‘쿤스트캄머(Kunstkammer)’ 즉, ‘호기심의 방’에서 특별한 질서나 원칙이 없이 기이한 물건을 모아놓은 방식에서 벗어나, 컬렉션을 상아, 청동, 은, 도금은鍍金銀 등 매체별로 분류하여 독립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상아의 방,’ ‘청동의 방,’ ‘은의 방,’ ‘도금은의 방,’ ‘금은보화의 방’과 ‘코너캐비닛,’ ‘문장紋章의 방,’ ‘보석의 방’과 같은 여덟 개의 방이 탄생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대칭과 반복이라는 구도로 전시품을 진열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으며, 아우구스투스가 유럽 최초로 시도한 ‘큐레이팅(curat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 <王이 사랑한 보물>은 ‘호기심의 방’에 함께 모여 있던 진귀한 물건들이 왕이 만든 보물의 방 ‘그린볼트’에서 분류되고 재배치되면서 새로운 맥락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그 대상품은 강건왕이 태어나기 이전인 1670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래의 세 점을 전시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1. <타원형의 뚜껑이 있는 잔>, 1587년



그림 2. <바다 유니콘 형상의 술잔>, 1600년경



그림 3. <퍼레이드 장식함>, 16세기 후반

## 약사여래상

허형욱 | 301호 불교조각실 | 19:00~19:30

약사신앙은 약사여래藥師如來를 믿고 예경하면 질병이 낫고 수명이 연장되며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현세이익적이고 대중적인 불교의 신앙체계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다. 약사여래는 실존 인물이었던 석가모니불에서 파생된 존격이다. 중생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무명無明으로 간주하여 이를 깨우쳐주던 석가모니불의 교화적 측면이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사여래의 권능으로 특화하여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약사여래상은 약사신앙의 수용기였던 삼국시대를 거쳐 통일신라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약사여래상은 손에 지물인 약기藥器를 들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에서 다른 종류의 불상들과 쉽게 구별된다(그림1). 아울러 우리나라의 약사여래상은 한쪽 손에 약기만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기와 함께 석장錫杖을 취하는 예가 많은 중국의 약사여래상과는 도상적으로 차이가 있다.

약사여래의 동방유리광정토는 사후 왕생처인 아미타여래의 서방극락정토에 대응하는 또 다른 정토로 인식되었다. 통일신라의 사면석불상이나 석탑 사면불상에서 약사여래상은 서쪽면의 아미타여래상과 반대되는 동쪽면에 배치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아미타여래, 석가모니불과 함께 삼불三佛의 하나로도 만들어져 시공간이 융합된 불교의 독특한 세계관을 상징하기도 하였다(그림2).

당唐의 현장玄奘이 650년에 한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등의 경전에서는 약사여래상을 만들어 공양하고 장엄하며 오른쪽으로 도는 예경법을 권한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약사여래상 앞에 7층 등燈과 5색 신번神幡을 차려놓고 약사경을 독송하면 소생시킬 수 있다는 속명법續命法도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약사도량이 행해졌고, 조선 초에는 궁중에서 약사정근精勤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약사여래상이 지녔을 종교적 기능과 용도를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금동약사여래입상의 일부, 통일신라 8세기, 높이 25.5cm



그림 2. 금동삼불좌상(향좌부터 아미타여래, 석가모니불, 약사여래), 조선 15세기, 높이 9.8cm

## 특별전 <쇠·철·강 - 철의 문화사> (3)

### - 고대의 제철기술

김상민 | 기획전시실 | 19:00~19:30

이번 전시는 철의 강한 성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철을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철이 인류사에 깊숙이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풀어냅니다.

자연 속 철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전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철기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더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을 만들어 냅니다. 이처럼 강한 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제철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동서양에서 보이는 철문화의 차이는 본래 제철기술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전 ‘쇠·철·강-철의 문화사’에서는 동서양 철기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낸 제철기술을 어떻게 알기 쉽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광석에서 강철로 된 도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제철공정에 대한 전시구현은 프로젝션 맵핑 영상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동서양 철기문화의 차이를 만들어낸 고대 제철기술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대의 제철기술을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철 만들기; 제련」, 여러 종류의 철을 강철로 바꾸기 위한 「강철 만들기; 제강」, 강철을 두드려 철기를 만드는 「철기 만들기; 단야」라는 3가지 공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철이라는 복잡한 기술 공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림 1. ‘철, 인류와 만나다’



그림 2. 모루와 공이